軍 성범죄 29건 중 20건 상급자 성폭력

상급자 성폭력 가해자 76% 영관장교, 원·상사
피해자 가장 많은 계급은 중·하사으로 나타나

국방부는 8일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총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20건이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지난2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TF 활동 기간 중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 총 29건의 사건이 신고됐다.

가해자는 총 38명으로 영관급 10명, 대위 4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일반직 군무원 12명 등이었으며, 피해자는 총 35명으로 영관급 1명, 대위 1명, 중·소위8명, 후보생 1명, 중·하사 16명, 일반직 군무원 5명, 계약직 군무원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으로 가해자의 76%가 영관장교와 원·상사 등이고, 피해자 94%는 중·하사와 중·소위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29건의 사건 중 TF 활동기간 신고된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2017년~2018년 1월 발생한 사건이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24건이 조사 중에 있으며,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한 2건은 사건처리가 종결됐다. 3건은 항고 중인 사건이다.

TF 활동기간 확인된 준간강 2건은 현재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에 있다. 이중 1건은 지난달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기무부대 소속 여군이 동료 남군에게 준강간을 당한 사건으로 추가적인 보강수사를 진행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TF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이 12건으로 TF가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TF는 양성평등 의식개선,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사건처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도 함께 도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性)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강사 이력관리 정보화시스템 개발하는 한편 국방부 내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예정)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성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 작성 등을 위해 운영훈령을 제정하고, 군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모든 장병의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성폭력 전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성폭력 사건 징계처리 기준을 세분화하며, 준강간·강제추행 등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시행되던 군내 성폭력 실태 조사도 2019년부터는 국방 예산을 반영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정례화된다.

TF관계자는 "특히 계급이 낮을수록 신고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며 "더 나은 군 문화를 위해서 남녀가 어떻게 조화롭게 일할 것인가와 함께 여군이 들어온 게 밥그릇을 뺏는다는 인식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조직 만드는 게 필요할 거 같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봄 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 어버이날인 8일 경남 거창군 주상면의 한 양파밭에서 밭일하는 아낙들 사이로 민들레홀씨가 바람에 날아가고 있다.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전국 18개 병원 출산시 인터넷 신고 가능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8개 병원은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성삼의료재단), 인정병원,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미즈여성병원(대전), 봄빛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부천·인천), 신세계여성(대구), 에덴병원, 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일신기독병원(부산), 파티마여성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이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산모 성명,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성별 등 출생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한다.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행안부,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10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한다. 산모 2명은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행사도 갖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美 유타주 공룡발자국, 관광객에 파괴당해

미 유타주 레드 플리트 주립공원의 사암(沙岩)에 남아있는 디노사우르스의 발자국들이 파괴되어 관광객들이 그 파편을 인근 호수에 던지고 있다고 공원 관리들이 말했다.

이 곳 공룡발자국들은 선사 시대의 거대한 공룡들이 남긴 수 백개 씩의 흔적이지만 지난 6개월 동안에 심하게 파괴 되었다고 레드플리트 주립공원의 조시 핸슨 소장은 말했다.

그는 최근에 육식공룡의 발자국이 찍힌 돌판들을 저수지 물속으로 던져 넣고 있는 10대 한 명을 붙잡은 적도 있다고 솔트레이크 트리뷴지에게 말했다. 보트를 선착장에 대고 있는데 물속으로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년이 디노사우르스 족적의 엄지 발가락 부분 두 개를 더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 애는 이미 여러 개를 물에 던졌고 손에 남은 것은 내가 구해 냈다"고 그는 말했다.

유타주 주립공원국 대변인은 이 곳의 보존 담당자가 조사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8~43㎝크기의 발자국 돌판들 중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10개 이상이 그렇게 해서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공원 대변인은 수 많은 사람들이 물가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들을 단순히 물속에 돌을 던지는 재미로 없애고 있다면서, 자기들이 손에 집어든 돌이 수 십만년 된 공룡 발자국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물속에 가라 앉거나 수면에 부딪쳐 산산히 깨어지기도 하고, 일부는 완전히 녹아서 사라지기도 한다.

주립공원 당국은 잠수부를 동원해서 물속의 파편을 건지거나 주변에서 되찾기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경고판을 더 많이 세우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소말리아서 폭탄공격에 케냐군 8명 사망

소말리아 도블레이 부근에서 케냐군을 태운 군용차량이 급조폭발물(IED) 공격을 당해 8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케냐와 소말리아 군 관계자들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평화유지군(ADISOM) 일원으로 소말리아에 주둔한 케냐군은 전날 오후 4시 차량 편으로 케냐 동북부 다다브에서 국경을 넘어 도블레이로 가다가 변을 당했다.

케냐 국방군 관리는 이번 피격을 확인하면서 알샤바브 반군이 라마단 기간을 앞두고 설치한 IED에 케냐군이 당했다고 설명했다.

관리는 알샤바브 반군이 극장과 주요 도로에 IED를 장착해 놓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관리는 부상자들의 상태가 심해 치료를 위해 케냐 와지르로 공수됐다고 덧붙였다.

게도 지역의 소말리아 관리들은 폭탄 공격으로 케냐군에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샤바브는 자신들이 공격을 감행해 케냐군 15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게도 주민들은 케냐 군용차량이 순찰을 돌던 중 대형 폭발 피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소말리아군 관계자는 폭발 후 케냐군 8명의 시신과 함께 부상한 2명을 직접 목도했다고 말했다.

도블레이는 케냐 국경에 인접했으며 그간 비교적 평온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미서 아이들 싸움중 11세 소년 총맞아 사망

미 인디애나주 북서부 지역에서 11살짜리 소년이 머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6일(현지시간) 숨졌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일리노이주 쿠크 카운티의 검시관실은 이스트 시카고의 데이비드 앤더슨 어린이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날 목격자들은 숨진 아이가 다른 두 명의 어린이들과 전날 저녁 싸움을 하던 중에 갑자기 총성과 함께 땅에 쓰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포스트-트리뷴지가 보도했다. 아직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없다.

이스트 시카고 교육청은 앤더슨이 조지워싱턴 초등학교의 학생이었으며, 이 학교에는 앞으로 일주일 내내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정신치료 상담사들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